



DREAM MONGOLIA



아가페 기독교병원의 전경. 보이는 벽면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 기도중입니다.

보험급여 결정과 함께 새롭게 오신 김정용 원장님과 병원 식구들이 함께 근무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드디어 혈액투석 치료에 보험급여가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무료로 투석치료를 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처음 선교병원의 비전을 가지게 되었을 때 가졌던 세가지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쟁력있는 병원, 복음 전하는 병원, 자립하는 병원의 꿈이었습니다. 몽골의 상황에서 자립의 꿈은 요원하였고 매달 천만원의 적자에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던 중에 지난 번 기도 편지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혈액투석

치료의 보험급여 결정을 받기위한 입찰이 진행되었습니다.

로비를 좀 해야 하나, 어쩌나 고민도 많았고 저희를 시샘하고 견제하는 다른 병원들의 방해도 있었습니다. 직원들 예배에서 보건부 장관과 친분이 있고 로비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오직 기도로 하나님만 바라보자고 합심하여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1차 입찰

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참 혼란스러웠고 직원들 보기에도 면목이 없습니다. 믿음의 길로 가려는 선교사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시나 싶었고 이제라도 로비를 하나 어쩌나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결국은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때에 해주실 걸 믿고 버티고 견디며 기다렸습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



보험급여로 투석실이 바빠져서 하루 20명의 환자를 치료합니다.



인터메드 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첫번째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할렐루야교회의 김승욱 목사님과 장로님들께서 방문하셨습니다.

말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요한복음 15:7

을 통해 다시 한번 성장케 하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병원들이 보험이 되면서 그나마 오던 투석환자도 줄어들고 하루 2-3명의 환자만 치료하게 되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나 기존 입찰결과가 취소되고 2차 입찰을 새로 하게 되어 저희를 포함한 7개 병원이 투석치료에 대한 보험급여가 지난 3월 3일 결정되었고 3월 6일부터 보험금을 받고 무료로 투석을 해 주게 된 것 입니다. 할렐루야!!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고린도전서 16:9

투석에는 대략 8만원정도의 원가가 들어가는데 보험금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6만원정도를 받게 됩니다. 다른 곳은 차액을 받거나 값이 싼 진료재료를 쓰지만 저희는 그냥 기존 치료의 질을 유지하면서 무료로 투석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통로를 얻고자 합니다. 그래도 보험 전보다는 훨씬 더 적은 재정으로 병원을 유지할 수 있기에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교회팀 방문. 병원의 새로운 도약 - 3단계

보험 치료가 결정된 날인 3월 3일 할렐루야 교회 담임목사님이신 김승욱 목사님과 선교담당 장로님 여러분께서 몽골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아가페 기독병원은 할렐루야교회에서 8년전 지

은 아가페 복지원에서 시작되었기에 할렐루야교회는 저희의 중요한 동역자입니다. 후원을 약속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동역해 주기로 하셔서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동역자들과 후원자들로 인해 병원이 한 발짝씩 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보험이 되고, 새로운 진료원장님도 오셔서 외래를 오픈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임상병리 검사실과 엘리베이터 등 병원에 필요한 2차 투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특히 피검사는 병원에 필수적인 요소로 이를 위해 검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 기도서신에는 피검사실과 외래가 잘 준비되었음을 알려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의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다는 말씀처럼, 막상 보험이 되고나니 보건부에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경고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보험금을 받으니 복음전파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겠지요. 경쟁력있는 병원, 복음 전하는 병원, 자립하는 선교병원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인터메드 병원 근무 시작

어제 3월 7일부터는 몽골에서 가장 시설이 좋은 인터메드 병원에서 주 2회 외래 진료를 시작하였고 첫번째 수술도 집도하였습니다. 처음 몽골에 와서 병원을 셋팅하고 함께 했던 곳에 다시 복귀하여 일을 하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신장이식도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식팀을 구성하였고 내일부터 교육을 시작하게 됩니다.

LIFE IN FAI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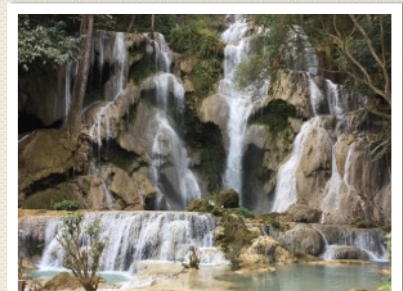
예수병원에 연수보낸 아가페 병원 을지마의사와 의대 전공의



라오스 폰사반의 라오-몽골친선 병원에서 최초의 복강경수술



라오스에서 모바일 복강경 수술 팀과 함께



라오스 루앙프라방의 유명한 광시폭포라는 곳입니다.

주님의 명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주께서 이뤄가시기에 맘에 쉼을 얻습니다

투석병원과 함께 신장이식으로 몽골에서 고통받는 신장병환자들을 더 잘 도울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여러가지 소식들

- 2월말 몽골 연휴기간을 이용하여 라오스에 복강경 수술을 해 주러 다녀왔습니다. 라오스와 몽골은 같은 내륙국가이고 사회주의 배경을 가진 혈맹으로 몽골에서 친선병원을 몇년전에 설립해 주었습니다. 국립의대 교수팀으로 폰사반이라는 지역에 방문해 수술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큰 딸 주은이와 동행하여 좋은 시간을 가졌고, 주은이도 3월부터 계명대 간호학과에 입학해서 대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88세이신 노모께서도 주은이와 대구에서 생활하시기 위해 한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 정수경 선교사도 불임병원인 씨엘병원에서 진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워낙 노산이 많아 불임시술의 성공률이 낮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아이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서 불임이 복음을 전하는 좋은 창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되신 하나님께서 불임시술에 기름부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외과 교과서로 쓰일 워싱턴 매뉴얼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의료선교사로서 학생들이 사용할 교과서를 만들어주는 일도 중요한 사역이라 여겨져 개인적으로 시작한 일입니다. 사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인데 책으로 만드는 일은 그리 간단치가 않습니다. 판권도 받아야 하고 교정과 조판, 인쇄등에 약 천만원 정도의

재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후원부탁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안내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은 아래와 같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후원자 성함(입금하신 성함으로만 발급 가능)과 현금내역(현금액수, 현금하신 날짜)
- 개인정보
개인 -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기업 - 사업자등록번호, 회사주소, 연락처
- 받으실 곳
메일로 받으시는 분들은 메일주소를, 우편으로 받으실 분들은 받으실 곳 주소를 적어 kcmf@hanmail.net 혹은 양경의 누가회 선교부 간사 (010-6832-2489)로 문의하시거나 보내주시면 확인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아래 사이트로 후원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신청하는 곳이 있으니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go.missionfund.org/ach30000>

2017년 3월 8일

박관태, 정수경, 주은, 준호, 하은 올림

연락처

+976-9104-4479 (박관태)

+976-8800-7784 (정수경)

카카오톡 아이디 (ktpark)

E-mail: davidp1@hanafos.com,
ktpark@mnums.edu.mn

기도제목

- 몽골 정부에서 받는 보험금으로는 무료투석을 할수 없습니다. 부족한 재정이 채워져서 무료로 투석해주고, 복음도 전할수 있도록. 병원의

자립도 할수 있는 3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정용 선교사님께서 진료원장으로 오셨는데 몽골 생활에 잘 적응하시고 외래를 오픈 하는 일, 임상검사실, 내시경실 등을 준비하는 일이 잘 준비되도록
- 국립의대와 병행하는 인터메드 병원에서 성공적으로 신장이식을 시작하도록
- 정수경 선교사의 불임치료에 하나님의 기름부으심이 함께 하시도록
- 책을 번역하는 일이 잘 마무리되어 좋은 외과 교과서가 나올 수 있도록
- 의과대학 제자들과 성경공부 모임과 가정교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 몽골의 오지들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제대로 된 이동진료를 시행할 Agape Mobile Hospital의 비전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지도록. 차량과 장비의 후원을 위해서
- 주은이가 한국에서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할머니와 함께 살 때에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후원계좌

- 하나은행 586-911044-05637 박관태 (기부금 증명서 가능)
 - 하나은행 586-911044-16037 아가페병원 (기부금 증명서 가능)
 - 필터 3000개 기증 정기후원
- <http://go.missionfund.org/ach30000>

